

66  
엄마와 딸이  
**‘입장을 바꾸면’**  
[이해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99



권은교  
작은딸  
(삼계중 2)



안미연  
엄마  
(46세)

엄마의

이야기

# 제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죠.

아침에 아이들이 교복 입고 학교 가는 걸 보고 있으면 가끔 제 학창 시절이 떠올라요. 친구들이랑 웃고, 떠들고, 자유롭던 그때가 그리워요.

아이들과 부딪힐 때면 나에게도 친구들이 전부인 시절이 있었지 저 때는 저러고 싶을 때지 생각하면서도

늦게 다니지 마라, 친구들이랑 그만 놀아라 아이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하게 되죠.

너무 소중한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늘 걱정이 돼요. 제 생명과도 같은 존재들이니까.

제 휴대전화에 아이들 이름을 보물 1호, 2호, 3호로 저장해놨거든요? 보물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앞으로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엄마 마음 좀 헤아려주면 안 되겠니?

권세인 (큰딸, 제일여고 2)

두 딸의

이야기

# 엄마와 저는 찰흙 같은 사이예요.

교복 입은 엄마를 보니까 너무 낯설었어요. 엄마도 내 나이일 때가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엄마랑 대화하다 보면 자주 싸워요. 친한 친구랑 늦게까지 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엄마가 저를 믿어주면 좋겠는데, 엄마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나봐요.

음... 엄마와 저는 찰흙 같은 관계 같아요. 사이가 좋을 땐 뭉쳐있다가도 찰흙을 떼어놓은 것처럼 어느 순간엔 멀어지기도 하니까요.

서운하고,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제 삶에 엄마가 없으면 안될 것 같아요.

엄마, 항상 내 곁에 있어줘. 나도 더 노력할게. 알았지?

안미연 (엄마, 46세)

권은교 (작은딸, 삼계중 2)





학생이 없는 새 학기.  
확자지결 시골벽적해야 할 학교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조용합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학교, 새로운 선생님...  
새로움으로 설레어야 할 학교가  
혹시나 바이러스라도 전염되지 않을까  
긴장감마저 나도는 요즘입니다.

며칠 전,  
조용한 어느 초등학교 앞을 지나면서  
어른의 한 사람으로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일을 고민하겠습니다.  
2020년에 2050년을 생각합니다.



# 아이좋아 경남교육

발행인 경상남도교육감 박종훈  
발행일 2020년 4월 6일  
발행처 경상남도교육청  
(5143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41  
055-278-1785  
편집인 홍보담당관 허재영  
기획총괄 홍보담당사무관 박미희, 주무관 이영미  
기획·취재·편집·인쇄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주)브레인

## Contents

April 2020 | vol.39

### 특집기획

- 06 **요즘 아이 시즌 2**  
요즘 아이 첫 선거, 첫 투표
- 11 **요즘 아이 앙케트**  
요즘 아이 '투표' 별별 앙케트
- 12 **요즘 아이&옛날 아이**  
옛날 아이들이 생각하는 18세 선거권

### 우리가 꿈꾸는

- 14 **처음**  
처음 '교장'
- 18 **경남교육을 하게 만드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 Wee센터 심리상담사
- 22 **내 꿈을 쫓아**  
미스터롯 출연자 - 정동원 학생
- 26 **주제가 있는 시네마살롱**  
일상의 소중함에 대하여

25



### 우리가 느끼는

- 30 **정책을 만나다**
- 36 **경남교육마당**
- 44 **힐링 필링**  
사천 신진리성 벚꽃 + 다솔사
- 48 **만 18세 선거권 Q&A**

- 52 **다독다독**  
사서가 추천하는 책

- 54 **웹툰**  
학교 폭력 관련 웹툰 3,4편

### 우리가 알리는

- 58 **도정소식-기사교류 <경남공감>**
- 60 **토박이말 나들이**
- 62 **의정 소식**
- 64 **독자칼럼**



47

# 다가오는 '4월 총선,' 작지만 큰 유권자들이 만들어 낼 변화!

다가오는 4.15 총선.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할 풍경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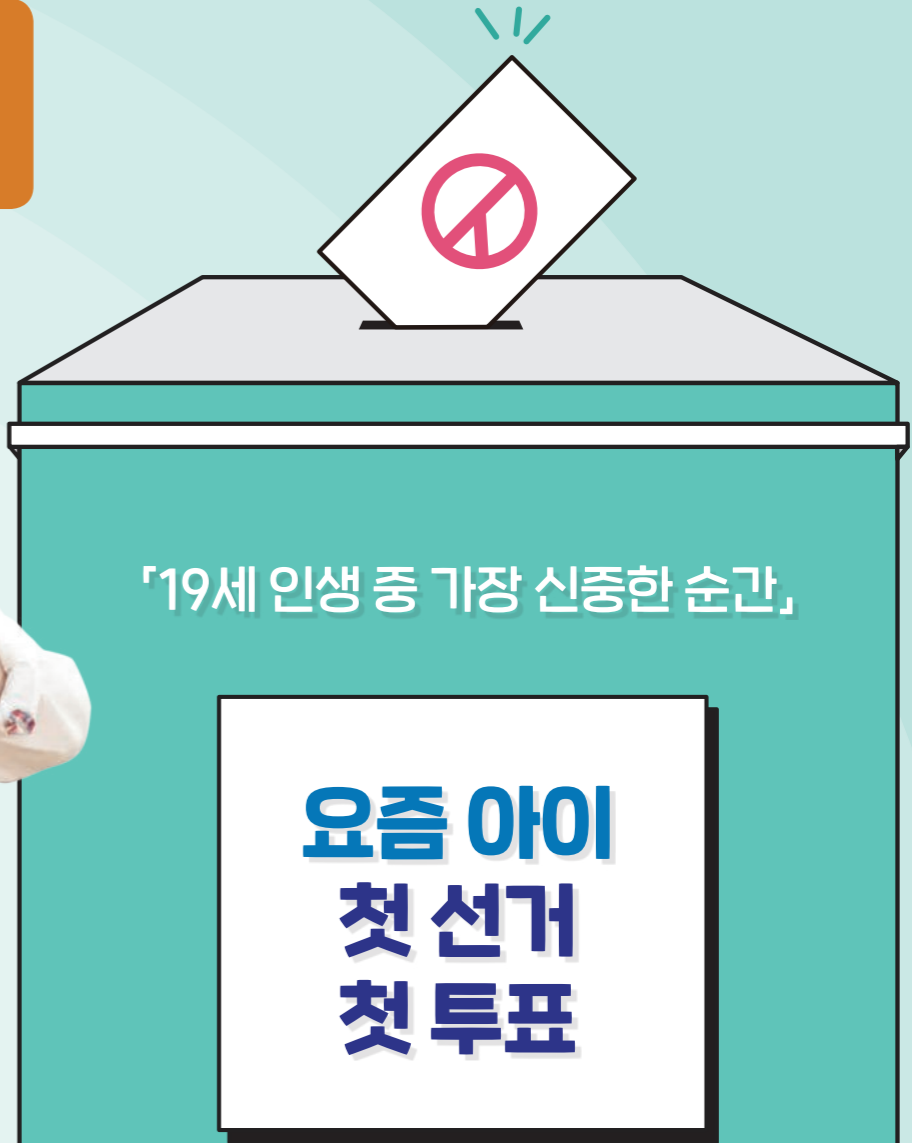
집 앞 투표소를 찾은 당신은 그곳에서 교복을 입은 유권자와 마주치게 될지도 모른다. 만 18세 선거권이 시행된 이후 이들이 참여하는 첫 선거가 바로 4.15 총선이기 때문이다. 경남 도내에도 9600여 명의 새내기 유권자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첫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4.15 총선의 또 다른 주인공이 될 만 18세 유권자들. 경남외고 3학년 이준혁, 마산여고 3학년 안이령, 마산여고 3학년 이현서, 성지여고 3학년 권현민 네 명의 아이들, 아니 네 명의 유권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권현민(19세)**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

**이준혁(19세)**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첫 단추"

**안이령(19세)**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

**이현서(19세)**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수단"



## 첫 투표를 앞둔 마음

#1

마산여자고등학교 3학년 교실. 선거 날에만 볼 수 있는 기표소와 투표함이 설치됐다. 19세 인생 첫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새내기 유권자를 위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해준 것이다. 신기한 아이들은 기표소에 들어가보고,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는 연습도 해본다. 설레고도 긴장되는 첫 선거, 첫 투표를 앞둔 네 명의 아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4.15 총선을 기다리고 있을까.

- 이현서** 제 인생 첫 투표잖아요. 설레기도 하고 처음이라 긴장도 돼요.
- 안이령** 저도 설렘이 제일 크고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요.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 후보에 대해 잘 모르고 뽑게 될까 봐.
- 권현민** 드디어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갖게 되다니! 나도 사회 구성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의 한 표로 결과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19년 인생에서 가장 신중한 순간이 될 것 같아요.
- 이준혁** 투표는 당연히 어른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눈앞으로 다가오니 당황스러운 마음도 있고요. 제 손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책임감도 느껴져요.



## 우리들이 생각하는 18세 선거권

#2

지난해 만 18세 참정권 보장 내용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부딪혔다. 기대와 우려 속 당사자인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 안이령** 그동안 정치는 저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투표권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후론 선거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 이준혁** 학교에서 친구들과 18세 선거권 문제를 두고 토론을 한 적 있었거든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은 우리가 정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여론에 휩쓸리기도 쉽지 않나 하는 의견도 많았어요.
- 권현민** 청소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해요.
- 이현서** 준혁이의 말처럼 저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거법 관련 교육을 해주면 좋겠어요.



VOTE

### 투표를 하는 나만의 기준

#3

그렇다면 네 명의 아이들은 어떤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질까.  
투표를 할 때 가장 고려할 기준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 이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약인 것 같아요.
- 안이령** 신뢰할 수 있는 후보인지 판단할 거예요. 후보자가 과거에는 어떤 공약을 했고, 실제로 실천을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어요.
- 권현민** 후보가 내세운 공약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치우친 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를 위한 공약인지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청소년 유권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하다 느껴지는 공약도 있지 않을까?

- 권현민**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나오면 새벽 한 시거든요. 친구들 없이 집에 혼자 갈 때가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밤길 가로등을 확충하고 귀가안심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공약을 기대하고 있어요.
- 이준혁** 제가 사는 마산이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젊은층이 누릴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늘려줄 후보에게 투표할 거예요.
- 안이령** 사소한 것도 이야기해도 되죠? 저는 동네의 인도가 더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환경미화원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쓰레기통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이 있으면 좋겠네요.
- 이현서** 최근에 연예인들이 악플로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댓글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좋겠어요.

### 첫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4

인터뷰를 마치며 당연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져보았다.  
우리가 꼭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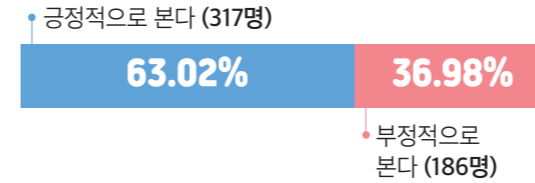
- 권현민** 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투표니까요.
- 이현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엄청난 수단이므로!
- 안이령**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 이준혁**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처음 투표에 참여하는 많은 친구들이 한 표의 소중함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 요즘 아이 '투표' 별별 앙케트!!

출처 : 입시전문 교육기업 진학사  
조사 기간 : 2020년 1월 31일~ 2월 4일  
응답 인원 : 만 18세인 예비 고3 (503명)



### Q1 만 18세 투표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Q2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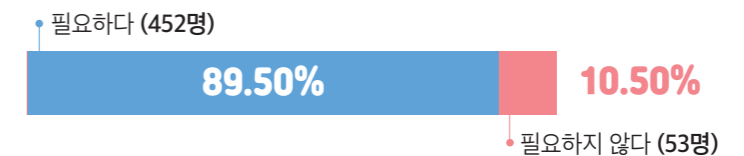
- 1위** 만 18세 학생은 정치적 판단을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238명)
- 2위**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효율적 학습이 될 수 있다 (107명)
- 3위** 과거에 비해 자신의 주체적 판단으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01명)
- 4위**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이미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73명)

### Q3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복 응답 가능)

- 1위** 주체적 판단보다는 부모, 친구 등의 의견에 휩쓸려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125명)
- 2위** 만 18세 학생은 정치적 판단을 하기에 다소 어려운 나이다 (104명)
- 3위** 대입 준비가 우선이므로 정치 교육을 받거나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54명)



### Q4 4월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옛날 아이들이 생각하는 18세 선거권

기성세대는 18세 선거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옛날 아이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동욱 (26세)

##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생겨서 다행.”

저는 첫 투표를 23살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정치에 대해서 생각이 가능했던 나이가 23살은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그런 주관이 있었지만, 첫 투표는 23살이 되어서야 가능했죠. 어렸을 때는 “투표... 별일 아닌데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투표권이 없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제가 살 나라를 어른들의 선택에만 맡겨야 한다니. 지금은 아이들에게 투표권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성철 (65세)

## “유의미한 변화라는 점에선 동의.”

물론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학생들을 위한 선거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유의미한 변화라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지금 만 18세 청소년들이 국회의원, 대통령, 지자체장 등 선거 때 투표할 수 있는데, 교육감 선거만큼은 선거연령을 조금 더 낮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서명일 (50세)



##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

우리나라 선거만 하면 투표율이 참 낮잖아요? 그래서 투표 연령을 넓혀서 투표율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투표연령을 낮추면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럼 정치의 중요성도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도 이번 정책을 계기로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투표의 중요성을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손희영 (42세)



## “자신이 살 나라는 자신이 만들어 가야죠.”

진작 됐어야 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많은 나라들이 18세부터 선거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19세였죠. 이제라도 18세에게 선거권이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살 나라는 자신이 만들어 가야죠. 18세도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디지만 선거 연령을 더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효원 (42세)



## “청소년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으면.”

얼마 전에 ‘알쓸신잡’이라고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거기 나오는 패널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인이 어른들만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정치도 많이 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투표권이 없다.’ 아이들도 우리나라의 구성원인데, 선거철만 되면 아이들을 위한 공약은 없고, 어른들을 위한 공약만 난무합니다. 18세 투표권이 청소년을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드는 기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 & 옛날 아이

학교장은 학교의 교무를 통괄하고 교직원을 감독하는 최고의 직책이다. 필자의 머릿속에는 옛날  
조회시간이 소환된다. “에~ 끝으로…… 에~ 마지막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훈화 말씀을 늘  
어놓던 권위적인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떠오른다. 이제는 많이 다르겠거니 예상을 해보며 지난  
2019년 9월, 처음으로 교장 선생님이 된 새내기 교장-강정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갔다.

# 꿈만 가지고 오세요 처음 ‘교장’

강 정 교장 선생님

꿈만 가지고 오세요

처음 ‘교장’



## 아이들이 무서워하던 공간이 꿈을 키우는 행복한 골목길로 변신! ‘꿈꾸는 골목길 프로젝트’

강정 교장 선생님이 대흥초등학교에 부임하고 가장 뿌듯한  
일은 무엇이었을까?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한 ‘꿈꾸는 골  
목길 프로젝트’를 주저 없이 꼽는다. 원래 학교 건물 뒤편 벽  
에는 담쟁이덩굴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음침하고 으스스  
한 분위기에다 벌레도 많고 뱀이 나오기도 했다. 때문에 아  
이들은 이곳을 무서워하고 피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  
아하는 공간으로, 가서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까?

“애들아, 어떻게 하면 좋겠니?”

교장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벽화를 그려보자는 의견이 나왔고 ‘꿈  
꾸는 골목길’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설계부터 아이들이 참여  
했고 학부모들도 와서 힘을 보탤었다. 벽화 전문가들이 와서  
돕고 모두가 합심해 멋진 그림들이 완성돼 갔다. 학교에서  
벽화를 그릴 줄 몰랐다면 기뻐하고, 평생의 버킷 리스트를  
이뤘다면 감격해하는 아이도 있었다. 그야말로 모두들 신이  
났다. 으스스하던 담쟁이 벽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밝  
게 채워졌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고민이 많다. 아  
이들을 위한 상담실을 만들고 심리 상담 전문 선생님을 모실  
수 없을까? 꼭 해결하고 싶은 숙제 중 하나다. 올해는 코디네  
이터 선생님을 위촉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돕는 ‘기  
회의 사다리’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 준비도 바  
쁘다. 학교를 아이들의 즐거운 배움터로 가꾸는 데 여념이  
없어 보인다.



“꿈만 가지고 오세요.”

‘처음 교장-강정 선생님’의 즐거운 배움터 가꾸기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고성 대흥초등학교의 교장  
실. 그런데 위치가 좀 생뚱맞다. 체육관 건물의 한쪽, 1평 남  
짓한 공간이 교장실이라네. 참 좁다. 「꿈만 가지고 오세요.  
교장 강정」이라고 적힌 나무 명패가 놓여 있는 걸 보니 교장  
선생님의 자리가 맞긴 맞나 보다.

“학생 수가 늘게 되면서 우리 학교에 공간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손님들이 왔을 때 모시  
고 마땅히 이야기 나눌 장소, 휴식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로 이사를 왔죠. 제 사무 공간으로 충분합니다.”

스포츠 강사실로 쓰던 임시 공간에 교장실을 옮겨왔다고. 본  
래의 교장실은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누구나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아늑한 휴게공간이 돼 있다.

“단점은 딱히 없습니다만, 저한테 상의할 일이 생  
기면 교감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이 조금 불편해하  
는 건 있죠.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부르면 언제든지 맞은  
편 본관 건물로 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일석이조로 운동  
삼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하.”

강정 선생님이 학교장으로 부임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넓  
고 쾌적한 교장실을 내놓은 것이었다. 체육관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다 보면 공이 문에 ‘쿵’ 부딪혀서 깜짝 놀랄 때도  
있지만 별것 아니라는 교장 선생님. ‘권위적’이라는 고정관  
념은 일찌감치 깨져 버린다.



### 새내기 교장 선생님의 4가지 약속

학교 교육공동체의 참여로 선발되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이 된 강정 교장 선생님은 당시 4가지 약속을 내세웠다.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교장 선생님이 되겠다는 것이다.

“선생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학생을 교육하는 일이지요. 교육의 직접적인 행위가 바로 수업이예요. 지난해 학부모님들 앞에서 공개 수업도 했고 지속적으로 수업을 하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계속 수업으로 만나고 소통하는 교장 선생님이 되리라는 약속이다. 두 번째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주는 업무지원 팀장이 되겠다는 것이다.

“선생님들이 온전히 학생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힘든 일은 제가 대신 맡아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학부모 상담가가 되겠다는 약속이다. 학교장은 선생님뿐 아니라 학교 밖으로는 학부모들과도 소통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혹시 모를 오해나 불만도 선생님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접 학부모와 상담하며 만족도와 신뢰를 높이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번째는 대외 협력사의 역할을 잘 하겠다는 약속이다.

“학교장은 학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하죠. 저희 학교처럼 공간이 부족하면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 이 약속들을 잘 지키며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꿈 만  
가 지 고  
오 세 요



### ‘태상부지유지’(太上不知有之)

“존재감 없는 교장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태상부지유지’(太上不知有之)입니다. 가장 큰 임금은 그 있음을 알지 못한다고 했죠. 학교장은 있지만, 학교장이 누군지 몰라도 학교가 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정 교장 선생님은 학교장의 영향력은 줄이고, 교육공동체가 만들어가는 학교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슬픈 일인데…… 학교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죠. 결국 단위학교의 학교문화가 학교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요. 학교문화는 그 학교를 구성하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교육공동체 전체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학교장은 와서 자연스럽게 그 문화에 녹아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 교직 생활 13년 남았는데 그런 문화로 바꾸어 가고 싶습니다.”

## Educus



### 에듀쿠스(Educus)-교사연구모임의 이유

Education의 'Edu'와 '~ 하는 사람'이란 뜻의 라틴어 'cus'를 합성하여 만든 이름으로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 경남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이다. 2017년 강정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만든 교사연구모임이다. 뜻있는 교사들과 함께 학교 밖 전문교육 학습공동체로 지속적인 모임과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교사 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책을 집필하여 펴내고 있다. 강정 교장 선생님은 교육의 자발성을 무엇보다 강조한다. 아이들도 자발성에 의해 공부를 해야 하고 선생님도 자발성을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한다고. 이 자발적 교육은 전문성에서 나온다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다. 때문에 이런 공부와 연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 경남교육을

## 위로하는 사람

# 배정희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Wee 센터를 찾았다. Wee 센터는 위기 학생의 학교생활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을 제공하는 상담센터이다. 전국 시·도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며 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예방과 생명 존중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Wee 센터의 위치를 알리는 친절하고 화살표 표시가 보였다. 화살표 방향을 따라 2층 계단을 쪽 올라가면 긴 복도에 똑같이 생긴 여러 개의 문이 나온다. '상담실'이라고 적힌 3개의 문이다. 하지만 낯선 문을 열기까지는 어떤 용기가 필요했다. 굳게 닫힌 문을 활짝 열자, 책상과 의자가 놓인 아늑한 공간이 보였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갓 내린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다. 배정희 상담사의 배려였다.



창원교육지원청 Wee 센터 >> 배정희 상담사

###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

학교 시간인 오후 2시를 지나면 복도에는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진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상담실이 가장 바쁜 시간이다. 배정희 상담사는 주로 오전에 학교 순회 교육과 Wee 센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오후에는 상담에 주력한다고 말했다. 보통 하루에 2~3명의 상담을 맡는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가진 상담 신청인을 만나고 있어요. 초등 저학년의 경우에는 ADHD로 인한 학교 부적응의 상담 의뢰가 많은 편이에요. 사회성이 떨어지거나, 교우관계로 힘들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연령대가 높아지면 자해 문제 또는 학업 중단의 문제를 토로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 마음속 이야기를 ‘톡’ 털어놓는 순간

‘상담’을 떠올리면 ‘무엇 잘못했나’라는 질문이 연상된다. 처음 상담을 잘못 겪었던 세대에게 나타나는 편견이다. 요즘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예방 차원에서 Wee 센터에 상담을 의뢰하는 양육자도 많은 편이라고 했다. 상담을 주제로 한 TV 프로그램도 상담의 장벽을 낮춘 것 같다고 배정희 상담사는 덧붙였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정희 상담사의 목소리를 가만 들으면 서 혹시 상담의 기술이 있는지 물어봤다.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건 누구나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아이들은 단답형으로 이야기할 때도 많고,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좋아하는 것을 물어봐요. 아이들 이야기도 좋고, 즐기는 게임도 좋고요. 좀 더 마음이 열리도록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모래 놀이를 통해서 좀 더 유연한 대화를 유도하기도 하죠.”

상담에서 신청인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왜 중요할까. 말을 많이 하다보면 스스로 자신의 상태와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 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배정희 상담사의 중요한 고민이다. 대화 중에 나온 정보를 잊지 않기 위해 자신만의 자세한 메모를 남기는 것도 노력 중 하나다.



### “엄마, 아빠에게 말할 건가요?”

상담사에게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학생들의 경우, 자신이 한 말이 양육자나 담임 선생님에게 전달되는지를 가장 많이 신경 쓴다고 했다. 배정희 상담사는 내담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편이다. 만약 양육자와 선생님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미리 동의를 구하고, 허락해준 부분만 알리는 것이다. 철저하게 비밀 보장이 이뤄진다. 상담은 보통 6회, 길게는 10회로 이뤄진다. 상담을 오래 해도 변화가 없다면 담당 상담사가 학생과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연계 조치가 이뤄지기도 한다. 최근 자해 상담을 해온 신청자는 무기력함과 우울을 토로했다. 질문에 대답도 거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마지막 상담에 이르러서는 나아질 것 같다고, 자신도 상담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면 보람을 느낀다.



# 배정희

### 행정 업무에서 본격적인 상담의 길로

배정희 상담사는 Wee 센터에서 일하기 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문 상담사로 5년 동안 근무하였지만 주된 업무는 교육행정 지원이었다. 그리고 2019년 Wee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전문 상담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서류로 익혔던 학교의 업무나 행정이 현장에서는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다양한 프로젝트와 행사, 교육을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동료들과 한 센터에서 일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됐다. 창원교육지원청 Wee 센터에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한 명씩과 상담(교)사 13명, 모두 15명이 함께 근무한다. 신청인의 문제는 상담으로 끝날 일이 아닌 경우가 많다. 대개 생활 전반이 좋아져야 변화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와 관련된 문제는 바로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자문을 하며, 만약 심리검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임상심리사에게 검사를 신청하기도 한다. 양육자가 병원에 데려가기 쉽지 않을 때는 의사가 직접 Wee 센터에 오는 정신의학과 자문의 제도도 유익하다. 각각 다른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된 것이 Wee 센터의 장점이다. Wee 센터의 상담 신청은 각 학교의 담임교사나 상담업무 담당자를 통해 할 수 있다. 공문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첫 상담은 신청 일주일 안에 이뤄진다.

### 꾸준히 배우는 편안한 상담자 되고 싶어

배정희 상담사는 아동학과에서 놀이치료를 전공했다. 놀이치료는 현재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하다. 보통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기표현이 어렵기 마련이다. 말이 서툰 유아의 경우는 놀이를 통해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 놀이치료실에서 부드러운 모래를 만지며 상담사와 함께 노는 것에 몰두하다 보면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 감정, 소망을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감정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배정희 상담사는 계속해서 모래상자 놀이치료로 슈퍼비전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하는 부모자료 상호작용 놀이치료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아는 것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싶어요. 같은 자리에 지식과 경험을 쌓고 또 쌓고 싶어요. 매일 상담을 하며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배움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 미래의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2020년 새해부터 봄까지, 사람들은 TV를 통해 '정동원'이라는 스타의 탄생을 지켜봤다. <미스터트롯> 첫 무대에서 '보릿고개'라는 노래로 원곡 가수를 눈물 흘리게 했던 이 소년은 이후로도 굳건한 실력과 무대마다 성장하는 모습으로 Top7 결승까지 진출하며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흔히 연장자에게 쓰이지만, 14살 트로트 가수 정동원 군에게도 그 말은 유효해 보였다. 본인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차분히 노래하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은 절절하게 흐르는 진짜 가수. '가수 정동원'의 프로필은 이제 시작되었다.



# 14살 동원이의 트로트 희망가

하동 진교중학교 1학년 정동원



저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14살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자기소개를 부탁하자 동원이가 늘 하던 멘트를 건넸다. 정식 앨범까지 냈으니 이제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입니다"로 바뀌어 될 듯한데, 본인은 아직 쑥스러운 모양이다. 시청률 30%를 넘으며 전국 팔도강산에 트로트 물결을 일으킨 TV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그 인기 지분에는 '정동원'이라는 이름이 분명 상당수 차지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 <미스터트롯> 때부터 방송을 봤었는데, <미스터트롯> 참가자 모집한다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참가하게 됐어요. 예감이 좋았어요. 잘할 수 있겠다는 예감. 할아버지도 추천했어요."

동원이의 노래 실력은 2018년 KBS1 <전국노래자랑>을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뽀글뽀글 파마머리를 하고 색소폰을 불던 열두 살 동원이는 그 무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SBS <영재발굴단>, KBS1 <아침마당-노래가 좋다>, <인간극장>을 통해 노래 실력과 사연을 알려 나갔다. <영재발굴단> 인터뷰 당시 "상을 많이 받고 그런 애들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상 받은 경험이 별로 없어서요"라며 본인의 출연 자체를 어리둥절해했던 소년은 오롯이 본인의 목소리만으로 이제는 전 국민이 아는 '국민 손자'가 되었다.

알려진 것처럼, 동원이가 트로트 음악을 하게 된 데는 할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동원이는 자연스럽게 트로트를 듣는 날이 많았고, 우연히 접한 색소폰에 어울리는 노래를 찾다 보니 그것 역시 트로트가 제격이었던 것도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특히 동원이는 색소폰을 처음 접한 날을 잊지 못한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 "12살 때였어요. 할머니 아는 분 댁에 놀러 갔을 때, 번쩍거리는 악기가 있어서 신기해서 붙어봤는데 그게 색소폰이었어요. 소리가 멋져서 아빠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그 뒤로 혼자서 만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 무대 위 승부사 ... 할아버지 영향 제일 커

동원이는 그냥 ‘악기를 만졌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니 그냥 만지는 수준이 아니었다. 한 가지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끝을 보고 마는 성격 덕분에, 악기를 잡았다 하면 부서질 때까지 치고 붙었다. 이런 까닭에 동원이가 가장 처음 만졌던 악기인 드럼은 벌써 세 세트째 바꿨고, 색소폰은 벌써 다섯 개째다. 색소폰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입술이 불어터졌다는 이야기는 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할 정도다.

☞ “승부욕이 아주 강해요. 남에게 지는 걸 싫어하고,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하고요. 할아버지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집이 면소재지에서도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거의 할아버지와 붙어 지냈으니까요. 할아버지 모습을 보고 자랐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정용주)

인터뷰 장소였던 ‘정동원 음악실’ 역시 할아버지와 추억이 가득 쌓여 있는 곳이다. 집 바로 옆에 마련된 ‘정동원 음악실’은 할아버지가 생전에 지어준 동원이 전용 연습실로, 각종 악기와 음향장비는 물론 지난 2년 동안의 ‘정동원 역사’가 오롯이 담긴 박물관 같은 곳이기도 하다. <미스터트롯> 방송 자체는 좋은 기억만 남아있지만, 단 하나 아쉬운 점을 꼽자면 동원이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간 모습을 할아버지가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는 것. 지금도 동원이는 ‘할아버지, 저 이제 무대 올라가요, 잘하고 올게요’라고 기도를 한 뒤 무대에 오른다고 했다. 할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이제 ‘국민 손자’가 되었으니, 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응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남진,  
나훈아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



### 방송 통해 훌쩍 성장 ... ‘내일은 더 클 미스터트롯’

무대에서는 거인처럼 단단하게 노래하면서도, 대기실에서는 ‘초딩’ 모습 그대로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동원이다. 실제로 집과 학교에서는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까 붙이었는데 마이크나 색소폰을 손에 쥐었을 때는 순식간에 표정부터 달라졌다. 또 하나, 이미 완성형인 줄 알았던 노래 실력이 무대마다 일취월장, 회를 거듭할수록 성장했다는 것도 인기 비결인 듯했다.

☞ “방송하고 팬클럽 회원 수도 많이 늘었고, 길 가다가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노래 실력도요. 옛날에는 가사만 외워서 그냥 불렀는데, 지금은 음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부르고 거기에 감정을 담으려고 노력해요. 관객들 반응도 살펴보고요.”

동원이가 <미스터트롯>을 하며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꼽은 ‘기부금 미션’. 무대 자체의 완성도도 마음에 들었지만, 여러 형들과 한 달 가까이 동고동락 연습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다고 했다. 오직 할아버지만을 위해 혼자 노래하던 소년은, 쟁쟁한 실력을 가진 참가자들을 만나며 더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

## 국/민/손/자 정동원



방송을 통해 동원이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었던 시간은 이제 가고, 동원이는 중학생이라는 새로운 생활을 앞두고 있다.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봤다.

☞ “<미스터트롯> 나왔던 양지원 형도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중학교 시절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때니까 행사보다는 친구들과 추억을 많이 쌓으려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 애들이랑 논 기억도 별로 없어서 중학교 때는 애들이랑 자전거도 동네에서 타고, 공연보다는 추억을 많이 쌓고 싶어요.”

중학교에서 피아노, 기타 같은 악기도 더 배우고 싶고, 작곡 공부도 하고 싶다는 동원이다. 동원이가 모든 인터뷰에서 꼭 남기는 말, “남진, 나훈아 같은 가수가 되고 싶어요”라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차분히 동원이를 기다려 줄 일만 남은 것 같다.



## 영화로 보는 교육이야기 일상의 소중함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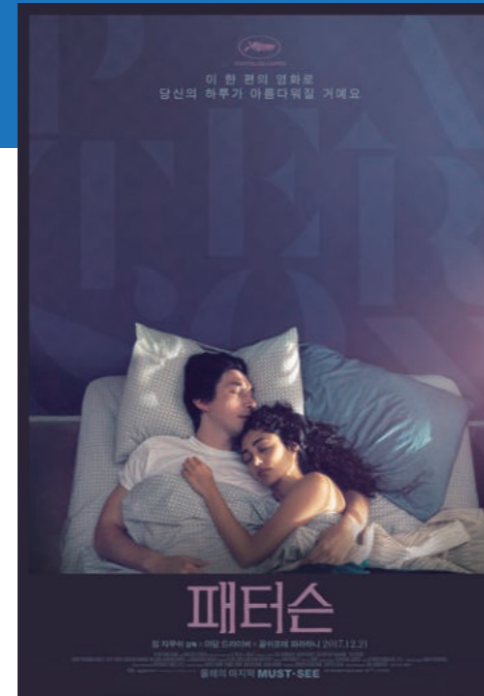
눈을 뜨기가 무섭게 뉴스를 챙겨 본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알려진 지 겨우 두 달. 그 사이 평범한 일상이 멈춰버렸다.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야 할 아이는 온종일 방과 거실을 오가며 놀 거리를 찾는다. 휴대전화를 챙기듯 마스크를 챙겨 잠시 외출을 준비한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도, 어딘가를 출입할 때도 최소한의 접촉을 위해 신경을 곤두세운다. 도서관도 문을 닫아 버렸다. 매주 보고 이야기할 누군가와 약속도 일체 사라졌다. 거리에는 겨우 눈만 내놓은 사람들이 바쁜 걸음을 재촉한다. 외출 뒤에는 동선을 되짚어 보는 것으로 불안한 마음을 다스려 본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 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아직은 서늘한 아침 공기를 옷이 느끼며 걷고 싶다. 좀 더 자고 싶다고 투정부리는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내고 서둘러 할 일을 하고 싶다. 잠시 멈추니 생각이 많아진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세 끼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그러면서도 거칠 것 없이 외출을 준비하고, 여행을 계획했던 일상이 그립다.

여기 거대한 쳃바퀴 돌 듯 현실을 각각의 방식으로 마주하는 세 남자가 있다. 특별한 것도 없는, 심지어 지루하기까지 한 버스운전자 패터슨은 일상 속 소소한 변수들이 어떻게 시가 되고 삶이 되는지 이야기한다. 행복을 찾으려고 떠났지만 지금 여기, 이곳에 행복이 있음을 깨닫는 헥터 씨의 좌충우돌 여행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묻는 듯하다. 뉴욕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월터가 펼쳐 보이는 힐링 업서 같은 세상은 잠시 고된 일상을 잊게 한다. '심심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놀던 아이가 어느새 잠투정을 한다. 무탈한 하루에 감사하며 아이에게 '잘자!'라는 인사를 건넬 참이다. 아차차. 우선 손부터 씻고.



4월호 <주제가 있는 시네마살롱>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단체 영화 관람이 불가능하게 되어 최규정 기자의 <영화로 보는 교육이야기> 칼럼으로 대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MOVIE



### Cinema #1

#### 패터슨 (2016년)

짐 자무쉬 감독

미국 뉴저지의 소도시 패터슨에 사는 버스 운전사의 이름은 패터슨(애덤 드라이버)이다. 패터슨은 깨워주는 알람시계도 없는데 오전 6시 10분 즈음에 눈을 떠 아내와 꿈 이야기 등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도시락을 챙겨 걸어서 회사로 출근한다. 늘 같은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며 승객들의 이야기에 배시시 혼자 웃기도 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쳃바퀴 같은 일상의 자그마한 재미다. 출근길을 그대로 되짚어 퇴근해 우편물을 확인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반려견 산책 겸 동네 바에 들러 맥주 한잔을 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에게 특별한 것이 있다면 노트와 펜을 들고 틈틈이 비밀노트에 시를 쓴다는 것이다. 월요일 아침 6시 패터슨 침대에서 시작된 영화는 꼬박 일주일을 보내고서, 다시 월요일 오전에 마무리된다. 참으로 단조로운 일상이다. 하지만 어떤 날은 퇴근하는 길에 만난 꼬마 시인의 시를 듣고, 어떤 날은 산책길에 자리한 빨래방에서 랩을 연습하는 래퍼를 만나 발걸음을 멈춘다. 영화 속 패터슨의 아내 로라(골쉬프테 파라하니)는 검정과 흰색 두 가지 색으로 갖가지 변화를 만들어간다. 패터슨시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닳은 듯 다른 쌍둥이들의 모습은 감독이 우리에게 던지는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다.

닳은 듯 조금씩 다른, 흑백의 대비처럼 단조로운 것 같은. 그렇게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을 사는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늘 새로울 수 있으며 시가 될 수 있음을.

“때론 텅 빈 페이지가 가장 많은 가능성을 선물하죠.”  
‘아하!’



**Cinema #2**

**쿠베씨의 행복 여행 (2014년)**

피터 첼섬 감독

아침이면 애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으며 출근하는 런던의 정신과 의사 헉터(사이먼 페그). 불행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저 들어주며 일상을 보내고 주말이면 무선 비행기 날리는 취미생활로 그럭저럭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환자들에게 의미 없는 상담을 하고 있다고 느낀 헉터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진다. 그렇게 헉터는 모든 걸 제쳐놓고 행복 찾기 여행을 훌쩍 떠난다. 돈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상하이의 은행가, 가족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아프리카의 마약 밀매상,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난 말기암 환자, 그리고 마음속에 간직해 둔 LA의 첫사랑까지 헉터는 여행지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을 통해 행복에 대한 그만의 리스트를 완성해 나간다. 설레고, 흥겹고, 신나고, 때로는 위험천만하기까지 한 여행의 순간들에서 헉터가 노트에 꾸불꾸불 적어나간 행복은 무엇일까?

“남과 비교하면 행복은 멀어진다.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온다. 많은 이들은 자신의 행복이 오직 미래에만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은 더 부자가 되고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행복을 목표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행복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다. 행복이란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 불행을 피하는 게 행복의 길이 아니다. 행복은 소명에 응답하는 것.” 그 많은 명제 속에서 헉터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결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헉터의 행복 여행에 가까이 동참해보자.

미래의 행복을 담보로 현재의 행복을 놓치지 말자.  
그리고 주문을 외워보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할 의무가 있다.”

# MOVIE



**Cinema #3**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13년)**

벤 스틸러 감독

월터 미티(벤 스틸러)는 잡지사 <라이프>에서 16년째 네거티브 필름 담당자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하루의 지출을 성실히 기록하는 미혼의 월터는 신입 사원 세릴 멜호프(크리스틴 위그)에게 마음을 두고 있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다. 그는 세릴이 인터넷 미팅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온라인 대신인 '윙크'를 보내려 하지만 거부당한다. 이유는 신상 소개란에 꼭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비워두었기 때문. 그가 비워둔 곳은 '해본 것'과 '가본 곳'을 적는 칸이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멍 때리며' 상상하기. 42살 생일을 맞은 날, 월터는 잡지가 폐간되고 온라인 회사로 탈바꿈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 가운데 전설의 사진작가 손 오코넬(손 펜)이 보낸 표지 사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당장 사진을 찾아오지 못하면 직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월터는 '삶의 정수'가 담겨 있다는 필름을 받으려고 지구 반대편 그린란드로 떠나기로 한다. 상상 속에선 슈퍼맨보다 더 강력한 히어로가 되기도 하고 벤저민 버튼보다 로맨틱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그는 구조조정에 떠는, 용기 없는 직장인에 불과하다.

상상의 나라를 펼치던 중 월터는 문득 모히칸 머리를 하고 스케이트보드대회에 나가 우승했던 어릴 적 경험을 떠올린다. 또한 유럽 여행을 위해 여행일지를 샀던 시절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상상으로 가득한 그의 세상은 이제 믿기지 않는 풍경과 함께 현실이 된다.

동선을 최소화한 일상을 살아야 하는 요즘, 그린란드에서 아이슬란드, 아프가니스탄, 히말라야를 종횡무진 오가며 헬기에서 북대서양 한가운데로 뛰어내리고, 상어에게 쫓기는 모험에 동참할 준비가 됐는가. 그와 함께 답답한 현실을 잠시 잊어보길.

# 60년 전 그날, 잔인한 봄, 4월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교내 연극 동아리 '우분투'에서 연극 활동을 하면서 3.15의거에 관한 연극(마산에 가면)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연극 활동 경험을 토대로 마산중앙고등학교 영상 제작 동아리 '양꼬별곡'의 부장을 맡게 되면서 3.15의거를 영상 주제로 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15의거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1차 의거를 알게 되었고, 그해 4월 11일에 27일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 군이 머리에 쇠파이프가 박힌 처참한 모습의 시체로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떠오르자 격분한 시민들이 다시 2차 의거를 일으켜 "부정선거 다시 하라"라는 구호와 함께 4.19혁명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내가 살고있는 이곳, 마산에서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일어난 역사인 3.15의거와 4.19혁명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상 제작 동아리 '양꼬별곡'에서는 6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지역의 아픈 역사를 청소년들이 보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영상 제작의 주제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2019년 골목의 사회적 학생동아리' 공모사업의 내용이 비슷하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행위)선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갖고 청소년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공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동아리에 선정된 후 '양꼬별곡'의 첫 모임 활동으로 2010년 마산문화방송에서 제작한 특별기획 2부작 드라마, '누나의 3월'을 다 함께 모여 시청하였습니다. 지루하고 딱딱한 문헌 자료보다는 드라마라는 영상 매체를 통해 3.15의거와 4.19혁명 때 있었던 일들을 역사의 현장에 있는 듯 생동감을 느끼며 4.19혁명이 일어난 계기와 그 전과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한 편을 감상한 후에는 각자의 생각을 나누면서 감상문을 작성하거나 드라마 제작에 들어간 촬영 구도와 편집 기법 등 시나리오 작업에 도움이 될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기초 자료 수집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서 현장 자료 수집을 위해 직접 현장에 나가보기로 하였습니다. 학생이다 보니 매주 토요일을 이용하여 우리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는 '3.15의거 기념탑', '3.15의거 발원지',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당', '3.15의거 기념비', '국립 3.15 민주묘지', 4월 혁명의 발원지가 된 '김주열 열사 시신 인양지' 들을 차례차례 다니면서 더 현장감 있는 역사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들의 현장 탐방 일정 / 매주 토요일

- 🕒 2019.04.06. 3.15의거 기념탑,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당 방문
- 🕒 2019.04.20. 3.15의거 발원지, 3.15의거 기념비 방문
- 🕒 2019.05.28. 국립 3.15 민주묘지, 3.15의거 기념관 방문
- 🕒 2019.06.22. 김주열 시신 인양지 방문



2019. 4.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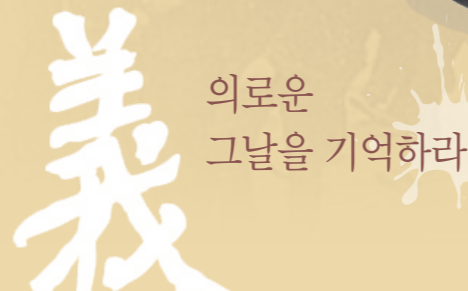
### 3.15의거 기념탑,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 방문

학교 주변에서 가까운 유적이기도 하며 3.15의거 당시 가장 치열하게 투쟁하였던 곳에 건립한 것이기에 의미가 깊다고 생각하여 '3.15의거 기념탑'을 첫 방문지로 정하였습니다.

한 부원이 3.15의거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3.15의거 기념탑 홍보영상을 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기념탑이 건립된 이유와 열사들의 넋을 기리는 곳임을 알리는 내용으로 '마산 예술의 자취'라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총격으로 12명이 사망하고 700여 명이 체포·구금되었다고 하니, 불의에 저항한 투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부정과 부패를 물리치기 위해 싸워 주신 분들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3.15의거 기념탑 촬영이 끝난 후에 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무학초등학교 총격 담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위치는 마산몽고간장 바로 옆에 있었고 이곳의 담장에는 1960년 3월 그날의 총격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담장에 얽혀 있는 사실을 영상에 담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조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담장에는 15일 밤 민주시위대가 무학초등학교 앞 도로에 진입하자, 경찰들이 시위 군중을 향해 무차별 실탄 사격을 가했던 총탄들의 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2019. 4. 20.

### 3.15의거 발원지 방문

제59주년 4.19기념일 다음 날인 4월 20일, 3.15의거 발원지를 방문하였고, 친구들과리 자주 놀러 갔던 마산 창동에 3.15의거 발원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곳 3.15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의 시작점인 옛 민주당사 건물과 건물 앞 도로에는 3.15의거 발원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독특하게 맨홀 뚜껑 형태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뒤편에는 3.15의거를 상징하는 부조물과 당시의 사진, 디오라마 등이 전시되어 있어 3.15의거와 4.19혁명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들의 외침과 김주열 열사의 처참한 시신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며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뜨거운 함성과 희망이 느껴졌습니다. 3.15의거 발원지는 안내 글과 자료들이 잘 정리된 상태로 전시되어 있어서 3.15의거와 4.19혁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볼 수 있어서 자료 수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북마산에 위치한 3.15의거 기념비를 방문하였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북마산파출소 주변에서 일어난 치열했던 역사의 흔적을 이 기념비를 통해 알게 되었으며, 불의에 저항한 마산 시민들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원래는 전방 20미터 지점에 있었는데,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약간 옮겨졌다고 합니다.



2019. 5. 28.

### 국립 3.15 민주묘지 방문

'국립 3.15 민주묘지'는 3.15의거와 4.19혁명에 대한 자료와 문헌 등이 많지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 3.15 민주묘지'에 많은 사람들과 학생들이 관심을 둘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기념관'인 '3.15의거 기념관'에는 3.15의거의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영상을 재생 중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12년 장기집권을 위해 실시된 부정선거의 표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3.15의거와 4.19혁명 이전에 대구에서 있었던, 고교생들이 자유 보장을 외치는 대구 '2.28 일요일 등교 사건'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었습니다. 만화로 벽면에 3.15의거와 4.19혁명에 대해 설명되어 있어 초등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워 보였습니다.



우리들은 자료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고, V-log 형식으로 기념관 내부에서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그날의 함성 체험하기'라는 활동을 하면서 "협잡선거 물리치고 공명선거 다시하자", "못살겠다 갈아보자", "학원에 자유를 달라"라는 문구를 다 함께 외쳐 보면서 영상에 담았습니다.

'제2전시관'에는 그날 밤에 발생한 12명의 희생자와 많은 부상자들, 27일 만에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발견된 김주열 열사의 일생에 대한 사진과 역사적인 기록들이 상황에 따라 전개되어 있었습니다. 김주열 열사의 처참한 모습을 발견하고 분노한 마산 시민들에 의해 2차 마산 3.15의거가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 의거가 4.19민주혁명의 배경이 되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나리오로 옮기고 3.15의거와 4.19혁명을 청소년들에게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2019. 6. 22.

### 김주열 시신 인양지 방문

4.19혁명의 대표적인 인물인 김주열 열사로 인하여 시작된 2차 마산 3.15의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마산 앞바다에 위치한 4월 혁명의 발원지가 된 '김주열 시신 인양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김주열 열사 인양지 표지석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석 뒤로는 잔잔한 마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 도중에 행방불명 되어, 27일 만인 4월 11일 오른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었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시신이 발견되자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전국으로 퍼졌고, 마침내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하였으며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지금부터 60년 전, 1960년 4월 11일 이곳에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김주열 열사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지금의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일제를 묵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는

지금의 민주주의

3.15의거



### 골목의 사회학 유적지를 영상으로 담다.

지금까지 방문한 유적지 중 제일 인상 깊었던 곳을 고르라고 한다면 4.19혁명의 발원지가 된 김주열 시신 인양지를 선택할 것입니다. '김주열 시신 인양지'의 '추모의 벽'이라는 곳에서는 4.19혁명을 비롯한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김주열 열사의 넋과 함께 기리고 있습니다.

골목의 사회학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4.19혁명과 3.15부정선거에 저항한 시민들을 기록함으로써 우리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3.15의거와 4.19혁명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골목의 사회학 동아리 활동으로 유적지 탐방 활동을 마친 뒤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4.19혁명에 관한 8분 단막극 제작 활동을 하였습니다.

1960년 당시에 있었던 3.15의거와 4.19혁명을 패러디하여 '앙꼬별곡 사건수첩(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기)' 편을 제작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바로 이곳, 마산에서 일어난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올바른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자 한 영상작품이

었습니다. 이 영상 작품을 출품하여 제11회 3.15 청소년 영상제 UCC 공모전에서 우수상으로 입상도 하였습니다. 본 영상을 제작하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그 당시 시위에 참여하신 분들과 그분들의 용기와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금의 민주사회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60년 전 그 당시의 중학생, 고등학생은 지금 70세에서 80세의 연로하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고 다지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존경해야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입시 경쟁에 몰입하여 내신시험과 수능시험 준비로 '우리'가 아닌 오로지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60년 전의 중·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역사는 후퇴했을 것입니다. 유적지를 다니면서 함께 토론하고 함께 영상을 제작한 '앙꼬별곡' 동아리 회원들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오늘날 '우리' 청소년의 정신에 의해 미래의 역사가 적어도 후퇴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기



## 2020 TO SAVE 2050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통해 세계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 확산을 유도한 스웨덴의 16살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 회의에서 들려준 그녀의 연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우리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연설에 영향을 받은 경남의 많은 청소년들도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의 심각성을 알리는 행동에 나섰다.



이에 경상남도교육청은 "기후위기를 포함한 환경 문제는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당장 실천에 나서야 하는 문제이다."라며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우리 청소년들이 앞장서 행동으로 표현하는 데 대해 미안한 마음과 함께 격려와 지지의 박수를 보낸다."고 뜻을 밝히면서, 해당 부서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업무 담당자는 학교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학교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5개월의 긴 논의를 거쳤고 두 가지의 유의미한 과제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환경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학교교육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비상선언을 준비했다. 먼저 밖으로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전국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교육부와 환경부에 환경교육법 개정과 학교 환경교육 대전환을 긴급 제안했다. 안으로는 학교교육과정 안에서 기후위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00대 과제와 실천교사단을 만들었다.



### 지구를 지키는 100명의 실천 교사단

지난 2월 17일 100명의 '실천하는 생태환경교육 교사단(이하 실천교사단)'은 '지구를 지키는 경남 학교환경교육 비상 선언'을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가 멸종될지 모른다는 메시지를 기성세대에게 던지고 있는 긴급한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기후위기를 환경교육의 핵심으로 삼아 함께 해보자는 것이다.

이날 실천교사단은 '따뜻한 관심과 작은 실천이 만드는 지속가능한 경남학교환경교육'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발표하였다.



# “ 100대 과제

100대 과제는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환경시민단체로부터 실천과제를 취합하였고 환경 전문가의 조언과 보완점을 수렴하였다. 17개의 큰 과제 속에 10개의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과제별로 핵심 역량을 제시하여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이, 가정과 학교에서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이 실천이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 2020 TO SAVE 2050



### 100대 과제의 고민은 무엇일까?

가장 큰 고민은 <100대 과제>가 실천하기에 너무 많고 어감도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많은 실천과제의 제시와 요구는 ‘무관심’(너무 많은 정보는 관심도를 떨어뜨림), ‘죄책감’(실천과제들을 다 실천할 수 없으므로), ‘무기력감’(실천해도 사회는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교육의 객체화’(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닌데도 따를 것을 강요받음)를 초래할 수 있어 부정적인 영향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행동과 실천만을 강조하게 되면 단기적인 습관 교육에만 머물러 환경교육에 대한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 100대 과제의 운영은 어떻게 하면 될까?

100대 과제를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종이 화장지를 아끼는 것처럼 한 주제만 선택해서 실천해도 되며, 여러 과제를 선택하여 실천해도 된다. 그리고 100대 과제 외에 좋은 실천과제가 있다면 학생들과 함께 정해 1년 동안 실천해도 된다. 고두철 선생님은 관심과 실천, 변화의 3단계 모두 실천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관심 단계에서 논(습지)에 사는 동식물을 알아보고 실천 단계에서 이와 관련된 생물로 환경 동아리에 참여하며, 변화 단계에서 생물 보호 캠페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 100대 과제 1년 후의 모습은?

선생님들의 실천 사례를 모아 매뉴얼로 만들 예정이다. 지구를 살리는 다양한 실천 사례와 생태와 환경에 대한 멋진 아이디어가 담길 것이다. 100대 과제 버전도 2.0, 3.0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교육청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지구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일을, 학교와 교실에서 실천하는 100대 과제를 실천교사단과 함께 가정·학교·사회에서 실천하면서 고민할 것이다.

1

### [1단계] 자연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 자연생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단계로 ‘지구 속에 살고있는 동·식물에 대해 알아봅시다’ 외 2개의 큰 과제가 있다.

2

### [2단계] 학교,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

↳ 학교, 가정에서의 작은 실천 단계로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해 봅시다’ 외 3개의 큰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

### [3단계]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

↳ 지속가능한 사회 변화 단계로 ‘우리 주변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알려 봅시다’ 외 2개의 큰 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함께 만든  
기획팀

고두철(칠천초 교사) 김경모(아로초 교사) 양보람(구산초 교사) 이종호(산양초 교사)  
박성현(산인초 교사) 박윤경(성산초 교사) 최규완(거제초 교사)

# NEWS

## 경남 교육뉴스

# EDUCATION

### 경남교육청, 인권·평화 조형물 설치 2주년 추모식

# 01



경상남도교육청은 2월 28일 제2청사 앞 인권·평화 조형물인 「기억과 소망」에 대한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은 지난 2018년 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며 설치한 「기억과 소망」 2주년과 3·1운동 101주년을 기념하여 박종훈 교육감, 송기민 부교육감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해 간소하게 치러졌다. 이 조형물은 지난 2017년 9월 내·외부 10명의 전문가들로 조형물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전시 일본군의 여성 인권 유린과 평화통일 염원'이라는 주제로 지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도록 그 역할을 계속해 갈 것을 기대하며 건립되었다.

### 창녕 명덕초 과학발명동아리 전국 다빈치 감동발상대회 휩쓸어

# 02

창녕 명덕초등학교 과학발명동아리 '꿈빛소금'이 제8회 전국 다빈치 감동발상대회에서 김승환(대상), 성민채, 김민준(금상), 홍리원, 이미린, 김도원, 공혜린, 박민지, 어윤제(은상) 학생 총 9명이 전원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대회 최고상을 수상한 김승환 학생은 '불을 얼릴 수 있을까?'라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준 높은 탐구를 통해 발표해 미래 노벨상을 향한 힘찬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되었다. 과학발명동아리 '꿈빛소금'은 이도현 교사의 지도 아래 매년 전국 과학발명·환경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의 발명대회인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3연속 입상하고 전국초중학교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에서는 대회 최고상을 수상하는 등 경남을 대표하는 과학발명동아리로서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AI 기업들도 주목한 '경남형 미래 교육'

# 03

#### 서울서 '미래교육테마파크, AI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미래교육테마파크 체험 콘텐츠 제시·협력 계기 마련

'경남형 미래 교육'에 대한민국 AI기업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 경상남도교육청은 1월 15일 서울창업허브(서울 마포구 소재) 10층 대강당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 AI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데이터 및 AI 분야 국내 전문가와 관련 스타트업 기업 100여 곳이 참가했다. (사)한국인공지능협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미래 교육의 사회적 요구와 변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데이터와 AI에 대한 교육적 고찰 필요성에서 마련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미래교육테마파크 건립 사업을 통해 미래 교육 체제의 전환을 주도하고, 선제적으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청사진을 구축 중이다.



### 울하중, 굿네이버스 굿워터 프로젝트 아프리카 우간다 식수위생 지원 사업 참여

# 04

울하중학교는 교육부 요청 경상남도교육청 지정 '사회적경제 실천역량 함양'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더하고 나누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2월 3일(월) '2020 굿네이버스 굿워터 프로젝트-아프리카 우간다 식수위생 지원 사업' 후원금 전달식이 있었다. 굿네이버스 담당자의 굿워터 프로젝트 안내 교육에 이어 후원금을 전달하였는데, 이는 2019학년도 1년간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교육활동으로 조성한 기금이기애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여하는 것이라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의 의미가 더해져 뜻깊은 시간이었다. '굿워터 프로젝트'는 물로 인해 삶을 위협받는 지구촌 이웃들을 위해 식수 위생 시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식수위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이다.



# NEWS

## 경남 교육뉴스

# EDUCATION

### 창원남산고, 제1회 학교공간혁신 학생 공모전 수상

# 05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상, 대한건축사협회장상 3개 부문 수상

창원남산고등학교(교장 류청수)는 12월 16일 서울 코엑스에서 교육부가 후원하고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주최한 '제1회 학교공간혁신 학생공모전-우리 학교 만들러 갈까?'에서 참가한 세 팀 모두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학생 공모전은 2019년 시작된 교육부 학교공간혁신사업과 관련해 미래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에서 주최한 것으로, 응모과제는 공간혁신과 공간변화 아이디어 2개 분야로 진행되었다.

공모전에서 1학년 DOB팀(공지현, 박신영, 이수현, 장유진)이 공간혁신분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2학년 New Balance팀(김소희, 김민현, 장보예, 박민영, 박유빈, 강민규)이 공간변화 아이디어분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감상, 2학년 The Attic팀(강우혁, 이은서)이 공간변화 아이디어분야 대한건축사협회장상으로 선정되었다.

### 경남교육청, 농어촌 지역에 통학버스 확대 지원

# 06

차량 24대 12억여 원 투입... 통학 여건 개선

경상남도교육청은 도농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학버스를 확대 지원한다. 지금까지 180억 원을 들여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 268개교에 477대의 통학버스를 지원해 왔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올해 12억여 원을 추가 투입해 통학 차량 24대를 확보하여 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11개교와 병설유치원 7개원 등 총 1,370여 명의 학생들이 통학 편의를 추가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통학 차량은 공동이용이 가능해 이들 지역의 중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산희망학교, 제1회 크리에이티브 리그 특별상 수상

# 07

양산희망학교(교장 정문자)는 대시 로봇을 활용한 코딩 대회인 제1회 크리에이티브 리그 대회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크리에이티브 리그 대회란 (주)마르시스에서 전국 특수학교(급)에 소속된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코딩 대회로 코딩 로봇 대시를 주제로 실시하였다. 본 대회는 주어진 미션을 학교에서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심사하는 방식으로, 미션을 수행하는 동안 장애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 및 팀원과의 협업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코치(이대승 지도교사)와 박현수(고3), 김재동(고3), 이민정(고3) 학생이 한 팀이 되어 출전하였으며, 미션 수행 과정에서 창의력과 팀워크가 돋보여 특별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박현수 학생은 "졸업하기 전 코딩 대회에 꼭 참가하고 싶어 도전하였는데 특별상을 수상해서 너무 기쁩니다. 미션 수행을 함께한 친구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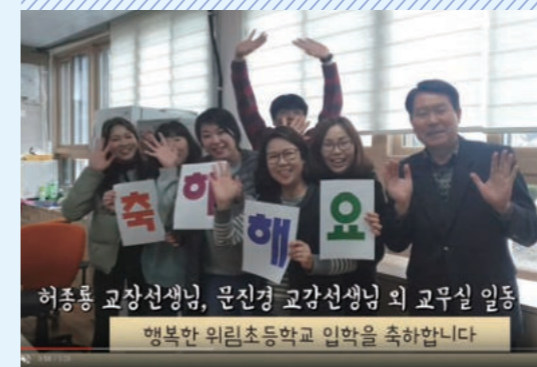
### 위기를 기회로, 유튜브로 소통하는 행복학교의 새로운 입학맞이

# 08

위림초등학교가 2020년 입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첫걸음을 시작하고 있다. 우주보다 귀한 입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이하기 위해 유튜브 '위림초등학교'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 인사를 전했다. 아직 학교가 어색하고 낯설어 긴장하고 있을지 모르는 입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위해 교장·교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반 및 전담 선생님과 행정실, 급식소, 돌봄 선생님까지 모두 자신을 소개하고 입학 축하하는 영상을 찍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입학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져 그 마음을 영상에 담기로 한 것이다.

영상을 접한 입학생 학부모 중 한 분은 "우리 아이가 교직원들을 잘 몰라 영상을 보고도 데면데면하였지만 위림초등학교의 따뜻한 마음은 전달이 되는 것 같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사천 다솔사 솔숲길, 그리고 선진리성 벚꽃을 기다리며

나른한 듯 긴장된 나날이다.

봄은 왔건만 봄 같지가 않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봄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하루가 다르게 총천연색으로 바뀌는 세상을 공포가 잠식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나날이 계속되고 있다. '일상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그의 책 <뉴스의 시대>에서 "보통 하루 이내의 간격을 두고(이 따금 그 주기는 훨씬 짧아지기도 한다. 특히 불안한 상태라면 고작 십 분이나 십오 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뭘 하고 있었든 간에 뉴스를 확인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춘다"라고 말했다. 불안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싶다. 탁 트인 곳에서 잔뜩 움츠렸던 몸의 긴장을 풀고 싶다. 그렇게 떠난 발길은 사천시 곤명면 봉명산이 품은 천년 고찰 다솔사로 향했다.

다솔사는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데 신라 지증왕 4년 연기조사가 처음 영약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 임진왜란 때 완전히 소실되어 숙종 6년(1680)에 복원된 이래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오늘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솔사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들의 은거지였다. 불교계의 항일 비밀결사 단체인 만단의 근거지 다솔사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을 비롯해 최범술, 김범부, 김동리 등이 기거했다고 전해진다.

## 경남에서 가장 오래된 절, 다솔사

다솔사를 찾아가는 길은 측백나무, 삼나무 사이사이에 소나무가 어울려 깨끗한 자태를 드러내는 멋진 숲길이다. 다솔은 '많은 군사를 거느린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많은 소나무를 거느린다'라는 뜻이 숨겨져 있으리라. 이런 연유로 사실 목적지는 다솔사가 아니라 다솔사를 향해 걷는 길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지금, 낯선 이와의 만남을 최소화하며 탁 트인 자연 속에 숨기로 했다. 가는 길은 온통 꽃 천지다. 매화는 이미 만개했고 목련과 개나리, 벚꽃도 봄별은 못 이기겠다는 듯이 봉오리를 가득 채웠다. 남해고속도로에 몸을 싣고 달리다 보면 다솔사 주차장에 도착한다.

주차장은 두 곳인데 이왕이면 다솔사에서 멀리 떨어진 첫 번째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좋다. 거기서부터 다솔사로 향하는 솔숲길을 걷는다. 군이 앞을 보지 않아도 된다. 짙으로 엮은 폭신평신한 길이 우리를 안내한다. 걸어서 다솔사 앞마당까지 가고 다시 걷기를 선택해도 된다. 녹음이 짙다. 나무 향이 청량감을 더한다.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저 자연 속에 몸을 기대라고 위로하는 것 같다. 산책로 사이로 길게 뻗은 솔숲이 아름다웠다. 싱싱한 생명력의 기운이 전해진다. 저절로 걸음이 느려진다.



### 어금혈 봉표 (御禁穴封表)

오르는 길가 우측으로 커다란 바위에 '어금혈 봉표(御禁穴封表)'라고 음각한 글이 쓰여 있다. 고종 22년에 내려진 것인데 어명으로 다솔사 경내에 무덤을 쓰는 것을 금한다는 뜻이다.

조정이 어수선했던 조선 말기, 지방관의 기강 역시 해이해졌다. 이때 경상감사가 봉명산 다솔사 자리가 풍수지리적으로 장군대좌혈인데, 이곳에 부친의 묘를 쓰면 가문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절에 사람을 보내 이장 준비를 지시하면서 다솔사는 발각 뒤집어졌고, 승려들은 이러한 지방관리의 비행을 알렸다. "어명이오" 결국, 일반 봉표와 달리 이곳 다솔사 경내에는 어명으로 어떤 분묘도 쓸 수 없게 됐다고 전한다. 가는 길에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아담한 돌탑들이 보이고 곳곳에 놓인 의자와 평상이 쉬어 가라고 손짓한다. 평상에 앉아 하늘을 본다. 끝 간 데 없이 솟은 나무들 사이로 파란 하늘이 동그랗게 떠 있다.



### 찬란한 봄을 느낄 수 있는 선진리성



4월은 벚꽃의 계절이다. 솔숲 길만 걷고 발길을 돌리기 아쉬워 선진리성으로 향했다. 다솔사에서 40분 정도 거리에 자리한 선진리성은 1598년 10월 일본군의 철수 과정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본래 이 성은 고려시대부터 토성이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이곳을 점령한 모리 요시나리가 토성 일부를 이용해 왜성을 만들었다. 낮은 언덕의 지형을 이용해 쌓은 선진리성은 서남북의 삼면이 바다에 에워싸이고 동쪽 한 면만 육지로 통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지금은 남북 양면이 간척돼 서쪽 방향으로만 바다와 접하고 있다. 선진리성에서 내려다보이는 바다는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투입해 왜군에 맞서 승리를 거둔 곳이기도 하다. 선조 25년(1592년)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군은 같은 해 5월 선진리성에 상륙해 진을 쳤다. 마침내 5월 29일 사천만의 선진리성 앞바다에서 사천해전이 벌어졌는데, 이 해전에서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처음으로 거북선을 투입해 적의 함선 12척을 격파한 것이다. 치열한 역사를 뒤로하고 지금은 만개한 벚꽃과 함께 찬란한 봄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더욱 유명해졌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코로나19 완치자가 확진자보다 많다는 뉴스가 들려온다. 남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봄바람에 희망도 함께 실리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나의 첫 선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Q&A

만 18세 선거권 도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4월 총선(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 다가오고 있다. 경남 도내에서만 9600여 명의 새내기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처음 겪는 선거인 만큼 아이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즐거운 투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꼭 알아둬야 할 사항 12가지를 Q&A로 준비했다. 더 많은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도록 하자.

기표소

기표소



## 선거 Q&A

? 투표할 수 있는 나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고등학교 3학년이라도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학생만 이번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2002년 4월 17일 이후에 태어난 학생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 선거운동이란?

신문에서 만 18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궁금합니다.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려고 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어 친구에게 OO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포함하며, 다른 질문에서도 동일합니다.)에게 투표하자고 권유하거나, OO후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자고 하거나, 또는 OO후보자를 지지해 달라고 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에게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홍보 인쇄물을 나눠주는 것과 같이 후보자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주위 사람들에게 주려고 하는 행위도 시기나 방법에 따라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궁금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전화번호:1390)로 연락하시면 담당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하는데, 반 친구에게 OO후보자를 찍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또한 쉬는 시간을 이용해 교탁 앞에서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OO후보자를 뽑자고 말할 수 있나요?

질문과 같이 선거운동기간(2020년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중에 친구와 개별적으로 대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행위 시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다만, 질문과 같이 반 친구 전체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뽑자고 말하는 것은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이 학교 현실에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로 OO후보자의 교육공약을 정리해 보내면서 이번 선거 때 OO후보자를 찍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낼 생각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이라면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언제나(선거일 포함)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는 한번 전송할 때 받는 사람이 20명을 넘어서는 안되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받는 사람을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선거 Q&A

### ? 투표 인증샷 촬영 ①

인생 첫 투표 기념을 하고 싶은데, 선거권 없는 친구랑 같이 사전 투표소에서 인증샷 찍어도 되나요?

투표소 내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 투표 인증샷 촬영 ②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참여 인증샷을 촬영하여 이를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퍼나르기)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촬영하여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만 18세 미만인 학생은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을 올리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소중한 한표' 꼭 참여하세요!**

### ?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물어보는 행위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학생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건지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넘어갔는데, 반복해서 물어보니 저도 좀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질문을 안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에게는 어느 정당·후보자에게 투표할 것인지 묻는 것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정중히 거절하도록 합시다.

### ? 선거운동을 위해 다른 교실에 가는 행위

평소 OO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어 선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같은 반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반도 계속 돌아다니며 친구들에게 OO후보자에게 투표해달라고 권유하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과 같이 다른 교실을 계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선거 Q&A

### ? 동아리 명칭 등을 사용하는 행위

제가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에서 'OO 동아리는 이번 선거에서 OO후보자를 지지합니다.' 또는 'OO 동아리 대표(회장) 000는 이번 선거에서 OO당을 지지합니다.'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요?

'OO 동아리' 또는 'OO동아리 대표(회장) 000'라는 표현을 써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 투표인증의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

제 친구가 투표인증 하면 무료 음료·식사를 주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투표인증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일체의 것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을 수 없습니다.

### ? 카카오톡을 이용한 지도도 조사

제가 사는 곳에 OO후보자와 ㄱㄱ후보자가 있습니다. 저희 반에서 어떤 후보자를 더 많이 지지하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같은 반 친한 친구들을 초대해 카카오톡 단독방을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 반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과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후보자 지도도를 알아보는 투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 기표소 내 투표지 촬영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시·전송·공유해도 되나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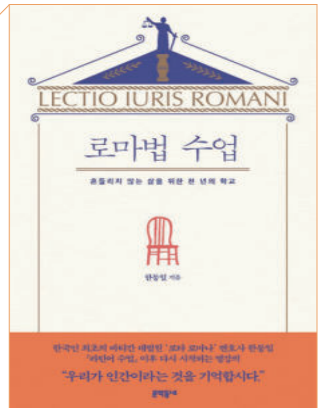


**NO!**

# 다독다독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연구회 추천도서

## 교육리더가 읽으면 좋은 책



### 로마법 수업

한동일 지음 / 문학동네 / 2019 / 263쪽

####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

로마법학자 예링은 『로마법의 정신』에서 로마는 무력으로, 그리스도교로, 법으로 세계를 세 번 지배했다고 했다. 2천 년 전의 로마법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인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인 저자는 로마법 중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생활인들이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주요 키워드로 간추려서 소개한다. 로마법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인간답게 살 권리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향한 조화와 균형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책 속 한 구절> 로마법은 슬한 압력 속에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싶어했고, 끝내 인간답게 사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나의 아집과 편견을 넘어 너와의 소통과 상생을 꿈꾸었던 로마인들이 하나 하나 쌓아올렸던 돌탑과도 같습니다. (11~12쪽)

## 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 우연과 과학이 만난 놀라운 순간

라파엘 슈브리에 지음 / 북스힐 / 2019 / 224쪽

#### 사소한 우연이 준비된 과학자와 만났을 때

현대인의 생활할 파트너 전자레인지를 상용화한 퍼시 스펜서, 책상의 필수품 포스트잇을 발명한 스펜서 실버 등 과학자들은 말한다. 발견의 그 순간은 '우연'이었다고. 물리학 박사이자 과학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일상을 뒤훤든 과학적 발견 중 일부는 연구자의 정교한 각본이 아닌 세렌디피티(Serendipity) 즉, 의도치 않은 뜻밖의 사건으로부터 탄생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던진다. 그러나 사소한 우연이 필연이 되기까지 과학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보여줌으로써 세렌디피티는 평소 준비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행운임을 강조한다.

<책 속 한 구절> 세렌디피티는 기술이고 재능이며 극소수의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시야를 가로막는 눈가리개를 벗어 던질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세렌디피티다. (219쪽)

## 실시간 검색어 1위

박현숙 지음 / 꿈꾸다 / 2019 / 211쪽

#### 지구 최후의 날이 찾아온다면?

어느 날, '지구의 종말'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1위에 올라오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날에 대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D-DAY 당일, 사람들은 어떤 하루를 맞이하고 있을까? 저자는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삶은 결국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평소 잊고 지내고 있으며, 자신을 돌아볼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간다고 말한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시기, 이 책을 통해 남은 학교생활을 어떻게 보내고 무엇으로 채울지 한 번쯤 고민해보길 바란다.

#### <책 속 한 구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주어진 시간이 다르게 다가올 것이다. (211쪽)

## 기억을 깨우는 햄스터 꼬물이관티

은경 글, 원유미 그림 / 함께자람 / 2020 / 142쪽

#### 햄스터 꼬물이관티가 깨워 준 소중한 사랑의 기억

도현이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하지만 치매에 걸린 채 홀로 계신 외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가족 모두가 서울로 이사를 온다.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도현이는 장갑을 낀 것 같이 생긴 햄스터에게 이탈리아어로 장갑이란 뜻의 '관티'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친구가 된다. 어느 날 관티가 사라지고 도현이는 관티를 찾아 헤매다 할머니 방 벽장 속에서 발견한다. 도현이는 할머니가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에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과연 도현이는 할머니와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책 속 한 구절> "이제부터 관티는 꼬물이관티라고 이름을 바꾸기로 했어." "호오, 그래?" 아빠 눈이 동그레졌다. "그리고 꼬물이를 앞에 놓은 건, 할머니가 부르기에 이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래. 할머니는 그냥 '꼬물이'라고만 해도 돼요." (125쪽)

## 한 그릇

변정원 지음 / 보림 / 2019 / 3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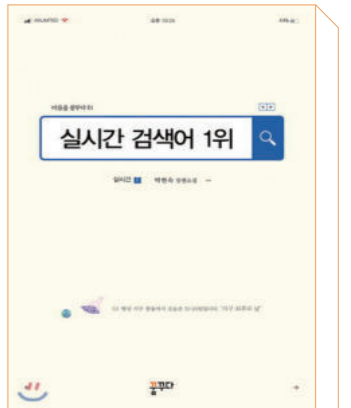
#### 특별한 점심 식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무슨 축제라도 벌이는 걸까? 트럼펫과 풍선, 폭죽까지 등장하는 책의 표지에는 어서 책장을 넘겨보라는 듯 주인공들이 손을 흔든다. 이야기는 밥술을 나온 밥덩이들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시작된다. 편지를 받는 건 누굴까? 뜻밖에도 초대장을 받은 주인공들은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들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학교 급식 시간. 속 썩이는 반찬 때문에 점심시간이 고달픈 아이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고루 먹는 한 끼 식사의 즐거움을 느껴보길 바란다.

#### <책 속 한 구절>

자, 그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 그릇을 만들어 볼까? (34쪽)

## 중학생이 읽으면 좋은 책



## 초등 고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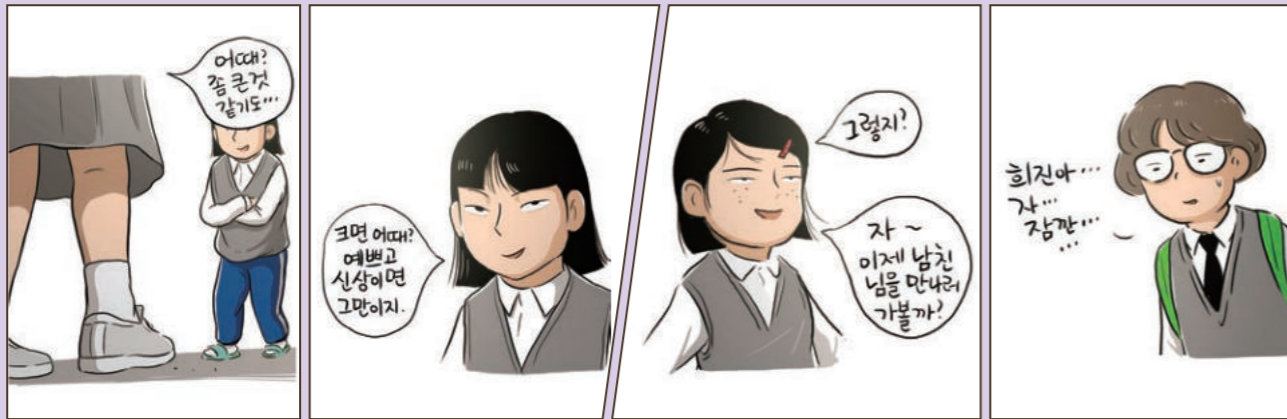


## 초등 저학년이 읽으면 좋은 책



# 학교 폭력 예방 웹툰

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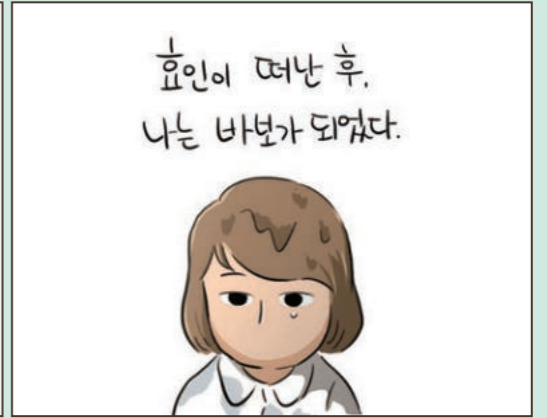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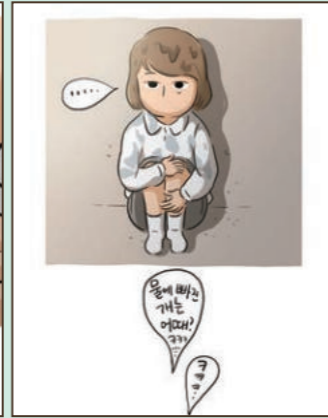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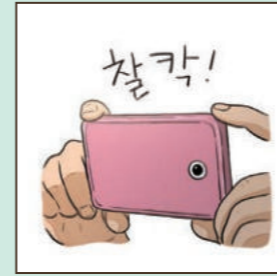


... 왜??

- 3편 끝 -

# 학교 폭력 예방 웹툰

4편



- 4 편 끝 -



## 가야유산 기획 18 가야의 왕도 금관을 썼을까?

글 김수환 경남도청 가야문화유산과 학예연구사

고대의 금공품은 당시 공예기술의 척도이자 신분을 가장 잘 드러내는 유물이다. 가야의 대표적인 금공품은 귀걸이(3월호)와 머리에 쓰는 보관(寶冠)이다. 가야 유적에서 나온 관은 4점이며, 출토지가 애매한 것까지 합쳐도 6점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와 분명히 구분되는 최고급 유물이다.

### 초기 가야 사람들도 관을 썼다?!

중국의 『삼국지』 위서 동이전 한조에는 1~3세기 가야의 풍속을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풍속은 의책(衣幘)을(입고 착용하기를) 좋아한다”는 부분이다. 가야 사람들은 의복뿐만 아니라 머리에 고깔이나 두건을 즐겨 썼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해 대성동 고분군의 북쪽 도로(현재의 구지로) 밑에서 발굴한 널무덤(2세기)에서 주인공의 뼈 흔적이 고스란히 출토됐다. 이마 부분에서 띠(帶) 모양의 철기도 나왔다. 발굴조사자들은 이 철기를 기록 속 ‘책(幘)’의 하나인 철관(鐵冠)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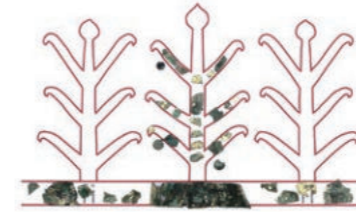
### 최초의 가야 왕관

『삼국지』는 변한 12국에 건장한 체격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들이 백성들의 고깔이나 철관과 다른 특별한 왕관(王冠)을 썼을 것이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과연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

사실 이를 증명하는 유물은 20여 년 전 김해 대성동 29호분에서 나왔다. 가야고고학에서 ‘금관가야 최초의 왕묘(王墓)’라 일컫는 무덤이다. 그런데 도굴 구덩이에서 30여 점의 금동 조각만 수습되면서 전문 고고학자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필자는 운 좋게도 이 유물을 직접 복원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호사(?)를 누렸다. 몇 날 며칠 한 점, 한 점 붙여가는 지난한 작업 끝에 머리에 쓰는 금



금동관 조각(대성동 29호분 도굴경수습)

동관(金銅冠)의 일부임을 밝혀냈다. 그 조각들은 관테(帶輪), 세움장식(立飾), 곁가지(樹枝), 달개(瓔珞)의 파편으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모습은 복원할 수 있었다. 둥근 모양을 잡아주는 관테는 전체의 1/5 정도만(10cm) 남아 있었다. 그 위에 붙은 세움장식에서 곁가지가 뺀고 끝은 새의 부리처럼 아래로 뾰족했다. 세움장식과 곁가지에는 둥글고 오목한 달개가 금동실에 달려 관을 쓰고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면서 화려함이 돋보이는 방식이었다.

대성동 29호분의 금동관은 완전한 모습으로 출토된 부산 북천동 11호분의 금동관(보물 제1922호, 2016년 지정)과 모양이 매우 비슷해 금관가야 관의 원형을 추정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다만 대성동이 북천동보다 100년 이상 앞선 가장 오래된 가야 왕관임을 분명하다.



금관가야의 관 (보물 제1922호, 부산 북천동 출토)

### 금관가야 관, 대가야 관

후기가야 시기인 5~6세기 동아시아는 ‘황금의 시대’로 통한다. 신라는 ‘황금의 나라’로 불렸다. 신라의 관들이 한자 ‘出’자의 세움장식을 기본으로 했다면, 가야의 관들은 다양한 형태의 세움장식을 통해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 그런 점에서 대가야의 관은 금관가야 관과 또 다르다.

대가야의 왕릉인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금동관(보물 제2018호, 2019년 지정)이 대표적이다. 그 가장자리

에는 대칭으로 파도형태의 점줄무늬(點列文)가 세밀하게 찍혀 있다. 관테 중간에 큼직한 광배(光背, 불상 뒤 광명을 상징하는 장식) 모양의 세움장식을 못으로 고정하고 세움장식 양쪽에는 ‘ㄴ’자형의 곁가지, 그 끝은 보주(寶珠, 불길이 타오르는 형상의 구슬)로 마무리했다. 대가야 관은 일본 후쿠이(福井)현의 니혼마츠야마(二本松山)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관과도 비슷해서 왜와의 문물교류 연구에도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대가야의 관(보물 제2018호, 고령 지산동 출토)

### 다양한 형태의 가야 관

가야의 관 중에는 출토지가 불분명한 것이 있다. 하나는 삼성 리움미술관에서(국보 제138호, 1971년 지정), 또 하나는 일제강점기 오쿠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가 일본으로 반출한 뒤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관은 경상남도에서 가져왔다는 설이 전해진다. 고고학자들은 2개 모두 가야의 금관(金冠)으로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물들은 금관가야와 대가야 관의 전형적인 형태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를 두고 고대 장신구 연구의 대가인 모 교수는 가야의 왕권과 집권력이 약해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필자는 여러 왕들의 다양한 취향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조금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앞으로 가야 왕릉에서 금관, 금동관이 더 출토된다면 그 이유를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가야의 금관 (일본 중요문화재,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 토박이말바라기와 함께하는 토박이말 나들이



**‘토박이말’이란?**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손수 만들어 써 오는 말이나 그 말을 바탕으로 새로 만든 말. 참우리말, 순우리말, 고유어라고도 함.

## 배움책(교과서)에서 캐낸 토박이말 ①

몸	씨	=	자	세
---	---	---	---	---



1학년 국어 교과서 첫째 마당 이름이 ‘바른 자세로 읽고 쓰기’입니다. 여기 있는 ‘자세’와 아랑곳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자세’라는 말을 자주 보고 들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옛날 배움책에는 ‘자세’라는 말을 써야 할 곳에 ‘몸씨’라는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말집 사전에 올라 있지 않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세’는 한자말로 풀이를 하면  
‘모양 자’에 ‘형세 세’입니다.**

둘 다 ‘모양’ ‘꼴’이라는 뜻입니다. 말집 사전에서 찾아보면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이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데 한자 풀이를 가지고는 ‘몸의 모양’이라는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세’에는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가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슷한말로 ‘몸자세’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한자말 ‘자세’는 ‘몸’도 ‘마음’도 다 들어가는 흐릿한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세’라는 말 못지않게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인 ‘마음씨’라는 토박이말과 함께 생각해 보면 ‘몸씨’라는 말이 아주 딱 맞는 말이 됩니다. ‘마음씨’를 말집 사전에서 ‘마음을 쓰는 태도’라고 풀이하고 있는데 ‘몸을 쓰는 태도’는 ‘몸씨’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세’라는 한자말에 몸과 마음이라는 뜻을 담아 두루 쓰면서 ‘몸씨’라는 말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는 말과 함께 ‘몸가짐’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런 토박이말을 알맞게 잘 살려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학년 아이들에게 어떤 말이 더 쉬운 말인지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을 써야 할 것인지가 더욱 밝아집니다.



# Interview

**Q** 지난 분기 동안 주요 현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매년 1분기는 그해 추진해야 할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시기별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활한 사업 시행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릅니다.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코로나19를 조속히 극복하는 것입니다.

전국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제 활동은 위축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던 대형 축제·행사 그리고 각종 사업들이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었습니다.

행정력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극복에 집중되어 역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께서도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도민들께서 슬기롭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창원14, 더불어민주당)

# 김하용



**Q** 코로나19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경남도의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바이러스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또한 고조되었습니다. 우리 도를 비롯한 국내의 경제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지원하고 경기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을 조속히 그리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 잊힐 만하면 다시 전 세계를 뒤흔드는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초기 발생, 대응 및 후속조치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또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바이러스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Q** 2020년, 부의장님이 기대하는 경남도의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11대 경상남도의회는 2018년 7월 1일 개원하여 58명의 의원이 350만 경남도민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년 가까이 우리 도의원들 모두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성장 악화 및 민간소비 위축, 저성장 국면 속에서 도민들의 웃음소리가 줄고 한숨 소리가 늘어난 것 같아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경남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해 도민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남도의회 역할이며 존재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도민 곁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 지역발전을 위해 역동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남의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위원회 의정뉴스

1

### 경상남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개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설소방위원장 신용근 도의원 선출 등

경상남도의회는 제370회 임시회를 3월 5일 하루 일정으로 개최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을 축소·연기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감사위원 선임, 건설소방위원장 보궐선거 등을 처리하였으며, 3일간 예정되어 있던 도정질문은 다음 회기로 연기되었다.



2

### 경상남도의회, 코로나19 극복 응원 메시지 전달

경상남도의회(의장 김지수)는 제370회 본회의 종료 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본회의에 참석한 전 도의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연일 노력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에게 위기 극복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광복 75주년과 '경남형 민주주의·평화통일교육'

봄이 왔다. 2월 말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가 경남에 확산되면서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의식해야 하는 겨울의 끝물이었다. 우리들 마음은 여전히 추운 '전염병의 겨울'을 견디고 있지만, 연초록 새순을 떨리듯 밀어내며 목련꽃이 피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조금씩... 조금씩 새순을 밀어내고 꽃잎을 피워내는 봄꽃들의 세상은 삭막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2020년의 봄날이 왔음을 알려왔다.

## | 2020년은 광복 75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산 출신의 여성 독립운동가 김명시의 삶을 다룬 소설 <명시>를 읽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이토록 자랑스러운 경남 출신 독립운동가의 삶을 잘 몰랐다는 것에 부끄러웠고,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아직도 독립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타까웠다. 분단 75년의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도 '냉전의 감옥'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이다. 이념 대립의 칼날이 '백마 탄 여장군' 김명시를 남에서도, 북에서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옥죄고 있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젊은 시절 사회주의 신념에 입각해 독립운동에 헌신한 후 인생 후반기엔 고문과 투옥, 감시와 멸시, 빈곤한 삶으로 점철하다 명멸해 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이 또한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까닭이리라 |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정한 광복을 이루었다고 말해선 안된다. 홀로 일어선다는 의미의 독립(獨立)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해방과 동시에 찾아온 분단으로 인해 한반도의 허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독립과 자립이 성립할 수 있단 말인가? 분단과 전쟁이 만들어 놓은 단절은 군사분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반도의 물리적 단절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동체에도, 독립운동에 헌신한 분들에 대한 평가에도, 교육에도, 아이들의 상상력에도 깊숙이 스며들어 있다.

지금의 마산 오동동 문화광장 터에서 태어난 독립운동가 김명시를 생각하며 '경남형 민주·평화·통일교육'을 생각한다. 경남만이 보유하고 있는 인물과 장소, 역사를 활용한 생생한 민주주의, 평화통일 교육벨트를 만들면 좋겠다. 우리 경남은 도처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콘텐츠들이 무궁무진하게 흩어져 있다. 마산에는 3.15의거와 10.18항쟁, 김주열 열사가 있고, 여성 독립운동가 김명시와 김효정의 흔적이 있다. 거제에는 한국전쟁기 포로 수용소 유적이 있고, 통영에는 민주주의와 통일에 헌신한 세계적 음악가 윤이상이가 있다. 거창과 함양에는 억울하게 희생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묘역이 있고, 산청에는 지리산 일대에서 활동한 빨치산 루트가 있다. 함천에는 일본 원폭 피해자를 기억하는 자료관이 있다. 밀양에는 김원봉과 박차정 등 항일운동가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경남에서 자라난 아이들에게 경남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역사적 인물과 장소를 활용해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 | 언제 올지 모를 통일은 미래세대의 몫이다 |

통일의 방식과 시기도 아이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일이다. 기성세대가 미리 아이들의 의식을 재단해서 주입할 일이 아니다. 아이들이 살고 있고 살아갈 지역공동체의 삶터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생각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경남형 민주주의, 평화통일, 인권 콘텐츠를 하나로 모아서 교육벨트로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해보자.

## |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우리들 마음속에도 있고, 교과서에도 있고, 교실에도 있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도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재난 상황의 복판에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온정과 배려, 대단한 대처능력을 보이며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재난도 극복해 내며 봄날을 축복할 것이다. 언젠가는 한반도의 봄날도 이렇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 독자 참여 코너 안내

'아이좋아 경남교육'에서는 독자와 공감하는 소통의 장을 확대하고자 독자 참여 및 제보 코너를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출기한 매달 5일까지

### 제출방법

경상남도교육청 홍보담당관

이메일로 보내기

✉ [kjhiou7@korea.kr](mailto:kjhiou7@korea.kr)

연락받을 수 있는 이름, 전화번호, 소속(교직원 및 학생인 경우) 기재

제출형식 제한 없음

### 문의전화

☎ 055-278-1785

### ☑ 처음

누구에게나 설레고 긴장되던 처음은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그리고 경남교육의 [처음]을 담는 코너

### ☑ 경남교육을 □하게 만드는 사람

경남교육을 건강하게, 즐겁게, 지혜롭게, 안전하게, □하게 만들어가는  
각 분야 베테랑들의 이야기

### ☑ 내 꿈을 쏘라

나만의 특별한 꿈을 키워가고 있는 학생의 이야기

### ☑ 내가 만드는 경남교육사건

경남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학부모, 교사, 학생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  
경남도민들과 함께 경남교육사건을 만들어가는 코너

## '아이좋아 경남교육'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으로 만나보세요.

### 구글 플레이스토어

➡ '아이좋아 경남교육'  
(제작: 브레인)을 검색

➡ 앱 다운로드

앱은 매거진 발행일 기준  
일주일 뒤부터 서비스됩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홈페이지 [www.gne.go.kr](http://www.gne.go.kr)

➡ 경남교육홍보관

➡ 매거진 신청/해지

발행시기 월간  
구독료 무료  
문의 홍보담당관  
055-278-1785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사전투표하세요!

사전투표 4월 10일(금)~11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을 방문하시면  
후보자·정당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 연령: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